**<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

21911355 윤소현

독도는 독도라는 이름 외에도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강산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의 지명은 항상 이름이 여러가지 인 것 같습니다 독도의 다른 이름으로는 우산도 , 삼봉도 , 가지도 등이 있습니다. 우산도는 높은 산이라는 뜻으로 신라시대 지어진 이름 입니다. 또 상봉도는 세 개의 돌로 된 봉우리라는 뜻 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찾아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독도에 강치가 많이 살았는데요. 강치가 많이 살고 있더는 의미의 가지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욕심내는 이유는 영토를 학장하려는 이유 뿐 만이 아닙니다. 독도에는 무궁무진한 경제적 가치가 잠들어 있습니다. 척 번째로 독도 주변을 흐르는 바다는 따뜻한 난류와 차가운 한류가 함께 만나는 해역으로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고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 청정 해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독고의 지하에는 어마 어마 한 양의 천연가스 층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독도는 영토 문제와 에너지 원 문제 해양 산업문제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요충지로도 중요한 섬 입니다.

그러면 독도가 왜 우리나라 영토인지 우선 역사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를 알아보러 서기 512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서기 512년 부터인 신라 지증왕 13년애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 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 영토로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기 1737 년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인 당빌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에도 우산도라 칭하는 독도는 조선왕국의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로 일본이 우겨서 안 될 이유로는 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에도 역시나 울릉도와 독도 옆에 ‘조선의 것’ 이라고 글자를 서 넣는 것으로 한국 영토로 기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말인 1696년에는 일본 정부는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및 독도에서의 고기잡이를 엄금하여 한국 영토로 재확인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무서인 일본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다 라는 실증 자료가 수록 되어 있다는 것과 일본 최고 국가 기간인 태정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 할 것’ 이라는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 보낸 적도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를 더 들어 보자면 19세기 말 갑오개혁 후에 작성 되었던 근대적 한국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 하도록 하고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어요. 1900년대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로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하였는데 이 때 서양 사람들은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이라고 호칭 하였습니다.

일본은 1905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강제 편입하였고 이름은 ‘다케시마’로 명명하게 되었기도 하였죠. 그러나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1945년 한반도 주변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시키는 군령을 발표했어요. 1950년도 연합국들은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통하여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하였고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일본의 맹렬한 로비로 인해서 대 일본 강화조약을 통하여 독도를 누락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지 지리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적 근거로 독도는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입니다 . 울릉군에 속해 있는 우리 땅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인 근거가 명확합니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 사이의 거리는 157.5 km 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 km 로 맑은 알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 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 되었습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기록만 있을 뿐 실측한 기록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 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월 평균 3~4회 이상 도도를 볼 수 있었고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 보다 찬 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더욱 가깝고 맨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독도는 우리나라 땅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가 왜 우리 나라 영토인지 국제법적 근거로 알아 보겠습니다.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후에도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900년 <칙령 제 141호>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 석도로 “ 명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체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표 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 제국 정부는 그에 맞서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확실히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이 문제를 바로잡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며 , 그로 인해 획득하였다고 구장한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독도가 일본의 시네마현에 강제편입 되기 전 1902년 대한제국 내부대신이 울도 군수 배계주에게 내린 공식문서인 ‘울도군 절목’ 에는 율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울릉도에 가져와 수출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체에 대한 수출세를 울도 군수에게 납부했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 하나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951년 체결된 ‘샌프라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는 것인데 샌프라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결정하기 전, 연합국 합의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기재 돼 있었습니다. 조약상 독도 지명이 한국 영토에서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울릉도가 기재됐기 때문에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서 기대가 생략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국 중 영국, 호주 , 뉴질랜드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 했는데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일방적인 견해를 샌프라시스코 강화 조약 전체 견해인 것처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악질적인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지만 아직도 독도 영토분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킬 수 있을까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잊지 않고 독도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고 현재 독도를 지키고 계신 독도 경비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